2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

Ⅳ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

이 찬 행
충북대학교

갱스터 래퍼gangster rapper 아이스 큐브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상점들, 특히 주류 판매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흑인으로부터 이윤을 착취한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반反이민 정서의 폭력적인 분출을 앞당기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1년 3월 16일 엠파이어 마켓에서 1.79달러짜리 오렌지 주스를 놓고 주인과 고객이 싸우다 벌어진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Latasha Harlins 살해 사건, 같은 해 6월 4일 존스 리커 스토John's liquor store 주인 박태삼에 의한 흑인 고객 리 아더 미첼Lee Arthur Mitchell 살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격화되고 있던 반이민, 반反한인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1] 본 논문은 이러한 반한인 정서가 1991년 10월 발표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라는 곡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한흑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는 백인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존 웨인 등을 풍자함으로써 지배 권력에 대항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갱스터 힙합 그룹을

대표하던 아이스 큐브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던 한인 상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스 큐브의 랩은 음악적 관점에서 보자면,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서 힙합의 경쾌한 리듬감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Black Korea」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반한인 정서에 음악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갱스터 래퍼가 노래하던 인종주의 리듬을 듣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인종갈등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여주는 리듬과 박자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이스 큐브를 비롯한 갱스터 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갱스터 랩이 지니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갱스터 랩의 상업성과 섹슈얼리티의 과잉을 비판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자로는 트리샤 로즈와 로빈 켈리가 있다. 특히, 켈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춰진 트랜스크립트hidden transcript"를 랩 음악과 같은 "무대 밖 정치 담론offstage political discourse"에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마이크 데이비스와 폴 길로이를 꼽을 수 있다. 지배 헤게모니에 순응하지 않는 몸짓을 갱스터 힙합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본원적인 재산의 축적"이라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그들의 노래는 "폭력, 여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탐욕"에 대한 무비판적인 반영일 뿐이라면서, 갱스터 힙합과 할리우드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였다.[3] 길로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힙합 음악이 상업화, 탈정치화되면서 "급작스러운 보수주의, 여성에 대한 혐오, 틀에 박힌 과잉된 성적 이야기"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힙합이 심지어는 "가장 흑인다운 문화"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4]

본 논문은 기존 해석과 달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은 저항과 상업성, 인종적인 계몽과 인종주의적인 폭력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는 「Black Korea」가 수록되어 있는 그의 앨범 『Death Certificate』(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1)에서 잘 드러난다. 필자는 본론에서 음악과 인간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류학적 음악학ethnomusicology의 시각에서 아이스 큐브의 곡들이 지향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인의 대응도 분석할 것이다.[5] 아울러 결론에서는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인한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였던 1991년 11월 이후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아이스 큐브. 본명이 오셰이 잭슨O'Shea Jackson인 그는 단연코 최고의 힙합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힙합은 곧 아이스 큐브이고 아이스 큐브는 곧 힙합"이라는 어느 한 문화 평론가의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스 큐브 없는 힙합 음악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로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를 마치 입에서 내쏟듯이 노래함으로써 훗날 갱스터 랩이라고 알려질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다. 특히 NWA가 내놓은 첫 번째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루스리스/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88)은 힙합 음악의 권력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6]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힙합이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흑인 민족주의와 부드럽고 시적인 라킴Rakim의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찬 영적인spiritual 읊조림을 특징으로 한다면, NWA는 이를 길거리로 끌어내려 로컬 상징과 거친 언어로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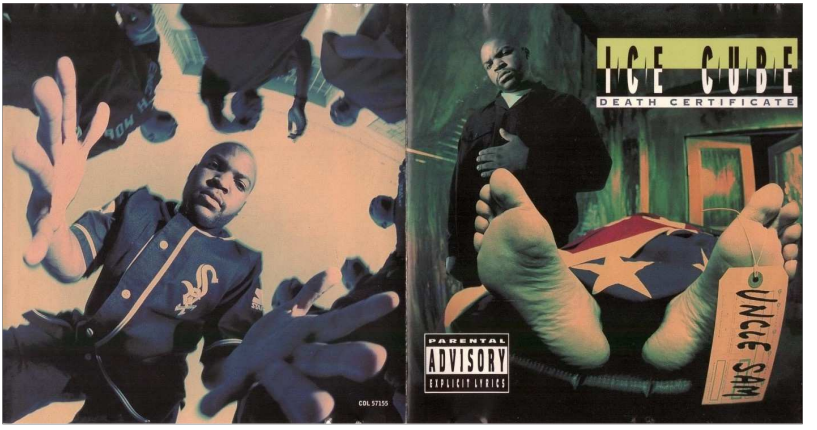
코드화함으로써 청중을 사로잡았다.[7] 역사가 켈리의 말처럼, 그들은 "모험, 억제할 수 없는 폭력, 그리고/또는 에로틱한 판타지, 서버브의 지루함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청중, 특히 백인 청중을 게토로 끌어들이기도 했다.[8]

아이스 큐브의 솔로 데뷔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0)는 그가 갱스터 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물론 음반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힙합 저널리스트인 앨런 고든이 주장하듯이,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 도면을 전공하기도 했던 흑인 갱스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흑인 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두 번째 솔로 앨범인 『Death Certificate』에서 이 같은 힙합 음악의 정치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구하기에 이른다.[9] 음악적으로 『Death Certificate』는 아이스 큐브가 다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쾌한 소리를 내다가 커다란 경적을 울리고, 삐걱거리지만 박자를 따라가면서 이를 되살리는 트럼펫처럼" 여느 래퍼들이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능수능란한 래핑을 보여주었다.[10] 『Death Certificate』는 또한 주제별로 구성된 앨범이었다. 앨범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 오프닝 트랙에는 「The Funeral」이라는 제목의 곡이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는 「The Birth」라는 곡으로 시작한다. 아이스 큐브와 앤절라 데이비스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따르면, 앨범의 이러한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아이스 큐브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파트를 통해 흑인들의 정신적 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삶을 뜻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운명과 스스로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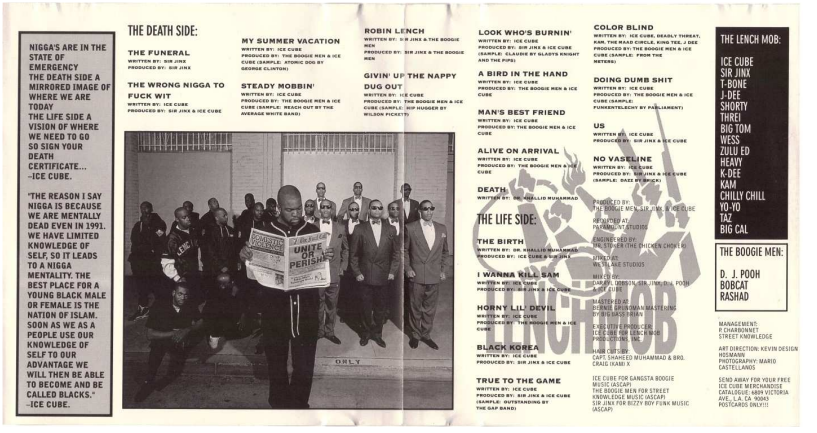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십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Death Certificate』에서 아이스 큐브는 흑인에게 본인들의 사망증명서에 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토의 언어로 쓰였지만, 아이스 큐브는 더는 길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사회정치적인 가스펠송을 부르는 흑인 민족주의자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The Funeral」에서 "깜둥이niggas"가 "비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앨범의 재킷 커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깜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91년에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는 깜둥이 멘탈리티다. 젊은 흑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people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흑인이 될 수 있고 흑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12]

앨범 재킷 이미지는 아이스 큐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헤어스타일인 제리 컬jheri curl을 짧게 잘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갱 스타일 복장을 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거나 여기저기 앉아 있는 십여 명의 흑인 남성들과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세 줄로 도열한 아홉 명의 NOI 보안 요원들 사이에 서서 "단결 아니면 죽음"이라는 글귀를 1면 전체에 걸쳐 크게 게재한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격주 간 간행물 『파이널콜Final Call』을 읽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장치들은 아이스 큐브가 민족주의자로 변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흑인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과 달리, 아이스 큐브는 다양한 이미지 전유를 통해 흑인의 민족주의적 자각과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13]



앨범『Death Certificate』의 커버 앞면, 원본 스캔



앨범『Death Certificate』의 커버 뒷면, 원본 스캔

하지만 제프 창이 지적했듯이 아이스 큐브의 흑인 민족주의 전유의 이면에는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의 반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아시아계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진 흑인들의 "지워짐$_{erasure}$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삶이라고 명명된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된 곡「Us」에서 아이스 큐브는 이러한 두려움과 반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일본놈들Japs이 내 동네의 모든 공터를 사들여 가게를 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지.”[14]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아이스 큐브의 분노는 「Us」보다 앨범의 열다섯 번째 트랙인 「Black Korea」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Black Korea」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40 Acres & A Mule Filmworks and Universal Pictures, 1989)의 한 대사로 시작한다. 영화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흑인 남성 라디오 라힘Radio Raheem은 항상 퍼블릭 에너미의 노래 「Fight the Power」가 크게 흘러나오는 붐박스를 들고 다닌다. 어느 날 붐박스에 사용할 D형 건전지 스무 개를 사기 위해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부부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한인 부부의 남편은 라디오 라힘이 내뱉은 것과 같은 종류의 비속어를 반복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한다. “Mother Fuck You.”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에는 바로 이 한인 상인의 욕설이 배경의 후렴구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또한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에서 “호른과 전자 기타의 날카로운 소리가 겹쳐진” 빠른 속도의 비트를 차용함으로써 곡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높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다.[15]

“엘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 / 하지만 그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 / 그 자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지 / 단순하고 분명하지 / 빌어먹을 그 녀석[엘비스]과 존 웨인 / 난 흑인이고 자랑스러우니까.”[16] 퍼블릭 에너미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웨인 등 미국의 문화적 상징을 공격하며 백색 아메리카에 저항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Black Korea」에서 아이스 큐브가 겨눈 총구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한인 상인을 향해 있었다.

엿 같은 맥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두 인간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해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작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깜둥이를 미치게 해
세상의 모든 흑인들이 물건을 훔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염병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내가 총을 꺼내 강도질을 하지 않길 바라지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쪼그만 가게, 하지만 이 년아, 난 직장이 있지
그러니 가게에서 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안 그러면 찹수이와 같은 너희 작은 동양놈들이 표적이 될 거야
전국적인 보이콧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그게 바로 그 녀석이 가진 것이지
그러니 흑인 주먹에 경의를 표해
안 그러면 네 가게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릴 테니
그럼 이만 가봐
너희들이 이 게토를 블랙 코리아로 바꿀 순 없으니[17]

「Black Korea」는 1980년대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흑인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무례하고 오로지 돈만 챙긴다고 알려진 한인 상인들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아이스 큐브가 포착한 것은 작은 가게에서 흑인 고객의 움직임을 의심스럽게 곁눈질해 보면서 범죄시했던 한인 상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난 직장이 있지"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Korea」는 흑인 청년 실업자를 무시하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곡이다. 나아가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란 사실상 유색인종이 미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Black Korea」는 이처럼 흑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목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18] 「Black Korea」는 또한 한인 상인들에게 흑인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면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한인 상인을 중국 음식 "찹수이"에 비유하는 인종적 욕설을 퍼부었으며, 흑인 게토를 지키고자 외지 상인들을 인종주의적인 방화로 위협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Black Korea」에 만약 들리지 않는 후렴구가 있다면, 그것은 25년 전 로스앤젤레스 왓츠 지역의 유대인 상점들을 불태웠던 시위대가 외친 "Burn, Baby, Burn"(모조리 훨훨 불살라 버려라)이라는 구호였을 것이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아이스 큐브의 음반이 발표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다. 1991년 11월 4일,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는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에 해당 앨범의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가 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혐오와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한미연합회는 라티노 단체인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교육펀드Mexican American Legal Defence and Education Fund, 그리고 심지어 흑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어번 리그Los Angeles Urban League, 남부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등의 지원도 받아 냈다.[19] 또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아이스 큐브의 앨범이 매장에 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반 유통회사인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는 앨범 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1월 4일에는 시장실의 김윤희 보좌관도 유통사에 "현재 매장에

진열된 모든 앨범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브래들리 시장에게 조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브라이언 터너 회장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20]

한인 커뮤니티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을 격렬하게 규탄했던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동맹을 발견했다. 아이스 큐브의 매니저였던 유대인 제리 헬러의 살해를 부추긴 마지막 트랙 「No Vaseline」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부副주임 사제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가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인 뮤직 랜드, 타워 레코드, 웨어하우스 레코드, 뮤직 플러스에 앨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 한인들의 캠페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21] 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는 음악 산업 전문지 『빌보드Billboard』로부터 외곽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빌보드』는 『Death Certificate』 앨범이야말로 "가장 악취가 나는 인종주의와 증오심"을 유발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했으며, 소매업체와 음반사에 아이스 큐브가 표출한 증오심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22] 「Black Korea」가 촉발한 한인들의 집단적인 대응은 이러한 지원을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앨범의 선주문은 이미 100만 장 이상 쏟아지고 있었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혹평 때문에 아이스 큐브의 앨범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코리아타운의 어느 한 대형 쇼핑센터 벽에 붙어 있던 자필 포스터에 따르면, 몇몇 한인 상인들은 매출 손실이 사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유로 앨범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23]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도 계속해서 앨범을 판매했다.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의 브라이언 터너는 아이스 큐브의 수사가 "일종의 마초적인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였다.[24]

미 서부 지역 힙합 역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음반 유통사는 『빌보드』 전체 역사상 공식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앨범은 『Death Certificate』가 유일하다고 항변하면서, 이 앨범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래퍼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5]

한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아이스 큐브의 앨범 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이제 맥주회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McKenzie River Corporation을 상대로 경제적 힘을 발휘해 아이스 큐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주류회사는 40온스 병으로 판매되는 몰트 리커 맥주malt liquor beer 세인트 아이즈St. Ides를 제조하고 각종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등장시켰다. 미국 평균 맥주의 알콜 도수가 3.5%이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콜트 45Colt 45처럼 알콜 함량이 높았던 몰트 리커 맥주는 주로 흑인 노년층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트 리커 맥주 선전에는 R&B/소울 뮤지션이 등장하곤 했다. 1986년 세인트 아이즈를 출시했던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도 소울 그룹인 포 탑스Four Top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대두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Run DMC, NWA와 같은 래퍼들이 자신들의 노래에서 Olde English 800 등 몰트 리커 맥주의 실명을 언급name check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몰트 리커 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확장되었다.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포 탑스를 광고 모델로 더 이상 기용하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던 서부 갱스터 래퍼들을 광고에 등장시켜 세인트 아이즈에 "게토중심적ghettocentric" 이미지를 새겨넣음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 흑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세인트 아이즈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1991년에는 몰트 리커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26]

세인트 아이즈라고 하는 몰트 리커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이끌었던 아이스 큐브. 그가 부른 「Black Korea」에 항의하기 위해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식료품점 상인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총동원하였다. 11월 초, 이들은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이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인트 아이즈 판매와 주문을 중단하고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은 롱비치, 파코이마, 샌퍼난도 밸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많은 한인 식료품점으로 확산되었다.[27] 한인식품상협회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맥켄지 리버가 아이스 큐브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다. 한인식품상협회가 불매 운동을 발벗고 조직한다면,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는 총 매출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3천여 개의 한인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처럼 커다란 매출액 가운데 맥주를 포함한 주류가 무려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인 식품상점들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28]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화들짝 놀란 맥켄지 리버의 사장 마이노트 웨싱어Minott Wessinger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한인식품상협회 이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오리건주의 유명한 독일계 양조업자 헨리 와인하드1830~1904년의 후손인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갈등을 조장하는 앨범을 제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스 큐브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주류 판매점에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또한 11월 12일자 로스앤젤레스판 『한국일보』에 실린 대형 광고에서 그는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에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라고 변명하였다.[29]

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전국한인식품상협회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협회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맥켄지 리버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리치몬드, 워싱턴 DC 등에 있는 약 5~6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이로 말미암아 맥켄지 리버는 700만 달러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30]

11월 20일,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한인식품상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홍보물 유포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그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31] 맥켄지 리버는 또한 아이스 큐브에게 연락해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32] 나아가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가 한인식품상협회의 임원인 김양일과 데이비드 김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식품상협회의 간부에 따르면, 1992년 2월 3일에 열린 이 회동에서 아이스 큐브는 자기 음악의 특징을 흑인들의 "과도한 표현excessive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면서, 결코 한흑갈등에 기름을 부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이스 큐브는 회동 5일 후 김양일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한인들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한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하였다.

> 저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나 모든 한국계 미국인 상인들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던 몇몇 가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 저는 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상점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입니다.[33]

91년 겨울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는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991년 11월 14일, 한인식품상협회는 로스앤젤레스 중남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1백 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34] 다음 달, 브래들리 시장과 로스앤젤레스시 인간관계위원회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한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하기"라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이민자 상인들을 "책임감 있는 사업가"로 양성하고자 했다.[35] 이듬해 1월 식품상협회는 또한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사이에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 가지 "좋은 비즈니스 관행" 원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36]

두순자-할린스 사건 재판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화해시키려는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91년 3월 16일 라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청소년을 도둑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여성 상인에게 같은 해 11월 15일 집행 유예, 보호 관찰, 4백 시간 커뮤니티 봉사, 5백 달러 벌금을 선고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조이스 A. 칼린 판사의 결정을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공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환영하였다.[37] 『한국일보』 사설은 이 판결이 미국에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38] 칼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들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어려웠다.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거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의 김봉환 소장이 일부 흑인 활동가들과 힘을 합쳐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몇몇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종주의적인 욕설로 대응하였다. "도대체 김봉환이란 자가 누구냐? 한국인이냐, 깜둥이냐?"39)

두말할 나위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는 두순자에 대한 칼린 판사의 관대한 판결에 분노했다. 살해된 소녀의 삼촌인 리처드 할린스는 "그년[두순자]은 죽게 될 거야... 내 조카를 죽였어. 그녀는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말하며 조카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40) 할린스 가족만이 불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한 독자는 『로스앤젤레스센티넬Los Angeles Sentinel』에 보낸 편지에서 "외국인이 '미국 태생'의 시민을 죽였는데도 그 외국인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두순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흑인 토착주의 언어로 표현하였다.41) 두순자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하였다. 당시 흑인 커뮤니티의 반한反韓 정서를 선동하고 있었던 대니 베이크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42)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정치부 기자 빌 보야르스키에 따르면, 베이크웰은 과거 미국 남부의 보안관들이 "Negro"의 첫 번째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흑인을 비웃었던 것처럼 "Koreans"라는 단어의 중간 음절을 길게 늘임"Kor-EE-ans"으로써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격한 반한 감정에 휘발유를 끼얹었다.43) 그는 나아가 월터 터커 캄턴 시장과 함께 한인 소유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44)

반한 감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증오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린스 총격 사망 사건 다음 달부터 두 커뮤니티 사이에 증오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수치가 1991년 겨울~1992년

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45] 예를 들어, 12월 4일 캄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한인으로 오인되어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흑인 갱단 조직원 두 명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 야구 방망이로 차 유리창을 부순 후 할린스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흉기로 그녀를 폭행했다.[46] 열흘 후, 한인 상인 박용태는 라틴계가 주로 거주하는 피코와 페도라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주류 판매점에서 흑인 강도 두 명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이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박용태 살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한인 상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소총, 감시 카메라, 방탄 유리창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47] 1992년 1월에는 중식당과 한인 주류 판매점이 기물 파손범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은 가게의 벽에 "Latasha Harlins RIP"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놓고 달아났다.[48] 로스앤젤레스 흑인과 한인 사이의 적대감은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흑인 커뮤니티의 소환 운동에 직면한 칼린 판사를 지지하기 위해 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1992년 4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대한노인회가 칼린 판사에게 재정적 지원까지 하였는데, 그 결과 흑인 커뮤니티의 반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49]

91년의 추운 겨울과 이듬해 봄은 이처럼 아이스 큐브가 마치 예언가라도 된 듯 한흑갈등이 뜨거운 연기를 뿜으면서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우는 대폭발의 서곡이었음을.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이찬행,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호모미그란스』 29, 이주사학회, 2023

〈저자소개〉

이 찬 행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SUNY Stony Brook)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및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현대 미국의 인종문제와 이민, 극우 세력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공저), 『Korean American History』(공저) 등이 있고, 연구 논문으로 「마주침의 공간 로스앤젤레스: 1980년대 중후반 한인과 흑인의 인종언어와 정치」, 「Migration to the "First Large Suburban Ghetto" in America: Korean Immigrant Merchants in South Central Los Angeles in the 1980s」, 「Chocolate Suburb, Vanilla Power: Race, Space and Civil Unrest in Ferguson」 등이 있다.